



지암곡 제3사지에서 신라문화원 남산 불적 답사 회원들이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남산의 계곡 사이에는 수많은 절과 석탑들이 산재해 있다.



답사에 참가한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어진 탐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답사 회원들.

세월에 스러진 석탑에 숨결을 불어넣다

남산의 자연과 복원탑을 찾아서

현재 경주 남산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석탑은 총 99기이다. 천년의 세월을 온전히 버티낸 것도 있지만 이 중에는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져 유구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것도 적지 않다.

2000년대 초반 경주 남산의 가치가 조명되면서 대대적인 발굴 조사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석탑의 복원작업들이 진행돼 이제는 제 모습을 찾은 석탑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경주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의 10월 경주 남산 불적 답사는 이런 복원 석탑을 찾아 보는 데에서 시작했다.

복원돼 다시 세워진 탑들

경주 남산의 순환도로를 따라서 국사곡 입구에서 약 440m 정도 올라가면 약간 큰 계곡이 있는데 이곳이 지암곡 입구이다. 지암곡의 큰 지바위와 작은 지바위가 모두 땅에서 솟았다는 것으로 전해지므로, 지암곡은 땅에서 솟은 바위가 있는 계곡을 말한다. 이 같은 계곡 사이 사이에는 옛 절터를 찾아볼 수 있다.

지암곡에서는 제2사지와 제3사지의 석탑이 복원을 통해 제 모습을 찾았다. 제2사지의 경우 건물지 축대는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그 위에 남동향한 건물지 석열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의 석탑은 2003년 복원이 완료됐는데, 이에 앞서 2000년 1월 17일부터 2000년 3월 20일까지 발굴조사가 실시됐다. 복원은 했지만 탑신석의 경우 모두 유실됐다. 옛 사전을 통해 그 규모와 형태를 짐작할 뿐이다.

통칭 '큰 지바위절터'라고 불리는 제3사지의 석탑도 2003년 복원됐다. 그러나 잔존상태가 양호해 거의 완벽히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탑신받침은 1매의 석재를 납작하게 다듬어 제작했고, 상부에 1단의 받침을 뒀다. 해발 310m 내외의 평탄면에는 자연암석이 3등분이 된 채로 깨어져 있는데, 이를 통해 자연암반을 지대석으로 삼아 탑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지암곡 제3사지 3층석탑 주변에서는 발굴조사 당시 다수의 유물이 출토됐다. 발굴 유물로는 암·수키와편, 연화문수막새, 당초문암막새, '용장사 명' 명문 와편 등이다. 이중 남산 서쪽에 위치한 용장계 탐상곡 제1사지(용장사지)에서 사용된 명문기와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두 사찰의 연관성을 알 수 있게 한다.

지암곡의 지바위는 불교와 토착신앙과의 공존의 장소이기도 하다. 제1사지에 있는 작은지바위의 경우 둘러진 바위 밑의 공간을 기도처로 사용한 흔적들이 있다. 실제 바위 입구 서쪽에 위치한 둥근 바위 면에는 '아이팔기'의 흔적으로 보이는 남자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아이팔기'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바위에 자식을 팔아서 그 아이가 바위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했다. 대체로 아이가 귀한 집이거나, 아이가 태어났어도 수명이 길지 못하다는 점괘가 나올 경우 아이팔기를 한 후 어머니가 일 년에 한 번씩 아이를 판 바위에서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신라의 삼기·팔교·삼보

지암곡을 나와 국사곡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사곡은 세 갈래의 지류로 나뉘며, 가장 큰 지류를 따라

정상에 오르면 경주팔교(慶州八橋)의 하나로 손꼽히는 남산부석이 우뚝 솟아 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바라보면 고깔바위가, 서쪽으로 상사암이 있다. 이 주변으로 기암괴석이 둘러싸고 있어 남산의 만물상이라 부르기도 한다.

국사곡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남산부석이다. 굴비위 남쪽 계곡 정상부에는 남산의 기괴한 바위중 하나로 아슬아슬하게 떠 있는 것처럼 보여

2000년대 초반 발굴 사업 후

남산 석탑 복원 작업도 진행

지암곡·국사곡 석탑 제 모습

사리장치 3층 위로 간 이유는

"불설조탑경" 영향에 따른 것"

부석(浮石)이라고 불리워진다. 높이는 10m에 이르며 한 바위 면에는 근세마애불을 조각돼 있다.

마애불은 결가부좌한 자세로 수인은 항마촉지인을 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름하게 표현돼 있으며 법의와 광배는 표현돼 있지 않다.

점연을 하자면 신라에는 삼기(三奇)와 팔교(八橋), 삼보(三寶)가 있었다고 한다. 삼기는 시조 혁거세가 천신으로 얻은 금척(金尺, 금으로 된 자로 병든 사람을 이자로 재면 쾌유한다고 한다)과 문무왕, 김유신의 혼령이 보였다고 하는 만파식적(萬波息箭), 성덕

대왕신중(聖德大王神鍾, 에밀레종)을 말한다.

팔교는 △문천도사(蚊川倒沙, 깨끗한 남천) △안압부평(雁鴨浮萍, 안압지의 수생식물 '말뚝') △백률송순(栢栗松筍, 백률사의 소나무) △금장낙안(金莊落雁, 금장대에 쉬어가는 기러기) △불국영지(佛國影池, 불국사 다보탑이 비치는 연못) △선도효석(仙桃曉石, 선도산의 아침노을) △금오만하(金鰲晚霞, 남산 금오봉의 저녁노을) 등이다.

삼보는 황룡사 구층탑(九層塔), 황룡사 장육존상(丈六尊像), 진평왕의 천사옥대(天賜玉帶)를 말한다.

국사곡에도 적지 않은 사지가 존재한다. 그 중 제4사지에는 복원된 탑이 있는 곳 중 하나로 2002년 복원이 완료됐다. 2000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석탑 복원 계획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결실된 탱주석과 탐구석, 노반석, 탑신받침석 외에는 부재가 양호하게 남아 있어 복원 결과도 양호했다.

지대석 복원에서 매납유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의 양이부호가 출토됐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군위 인각사 삼층석탑 주변에서 확인된 대웅과 양양진전사지 삼층석탑 주변 출토유물을 들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구지표 정지층에서는 석등 화사석편, 광배편, 보륜편 등이 출토됐다.

신라 석탑의 변화 이유는?

이날 최민희 신라문화원 부설 연구소장은 통일신라의 석탑 조성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감은사 이전에 세워진 탑들은 대부분 목탑에 부처님의 사리도 아래에 모실 수 있게 만들어졌지만 682년(신문왕 2)에 세워진 감은사 이후에는 삼층석탑으로 정형화됐다. 사리공이 탑의 상층부로 올라간 것도 이 시기부터다.

"**불설조탑공덕경**"의 번역 시기가 680년입니다. 감은사가 건립된 것은 682년으로 시기적으로도 <불설조탑공덕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경전에 따르면 '탑이 없어서 능히 그 가운데 세우려는 이는 그 형상이 높고 묘해 삼계(三界)를 지나게 하거나 내지 지극히 작게는 암라과(菴羅果)와 같게 하라'고 설했습니니다. 여기서 '삼계'에 대한 표현을 위해 신라인들은 삼층의 석탑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7세기 후반에 조성된 전형적인 신라 3층 석탑의 시원을 이루는 탑들은 <조탑공덕경>을 소의경전으로 해 조성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경주 남산의 불교 문화재들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강인숙 시인은 복원된 국사곡 3층석탑을 보고 "모진 세월에 이름 없는 석공들의 숨결이 흐르던 탑에서 2500년 전 열반에 드신 그분을 생각한다"고 노래했다. 석탑 아래로 흐르는 가을비가 오탁악세의 짙은 번뇌를 씻어주는 듯 하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사·신라문화원 10월 경주 남산불적답사

- 주제 : 남산에서 바라보는 남산
- 일시 : 10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도시락, 필기구
- 동참 비용 : 2만원 (회원, 학생 1만8천원)
- 문의 : 054)774-1950, www.silla.or.kr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전통 '조왕탱화' '반야용선'

조왕탱화

부양의 신인 조왕신(부역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상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 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크기 : 가로 61cm × 세로 91,5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패불형

반야용선

어지러운 세상을 넘어 피안의 극락정토에 갈 때 탄다는 배를 말한다. 반야(般若)란 모든 미혹(迷惑)을 끊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이나 모든 법을 통달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뜻한다. 반야용선은 망자를 위해 걸었던 그림으로, 그림에는 보통 좌로부터 극락의 주인인 아미타부처, 극락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든 인로왕보살, 반야용선과 망자가 표현되며 슬픔에 젖은 유가족이 그려지기도 한다. 즉 반야용선이 그려진 것은 망자가 아미타부처가 계시는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往生)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크기 : 가로 90cm × 세로 130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패불형

조왕탱화

반야용선

한 탱화 수강 신청안내

불모의 도움을 받아 한 탱화 조성 과정(1.출초 2.배접 3.아교 포수 4.도채 5.바림 6.문양 7.금니 및 황선쫓침 8.금박붙이기 9.상호 10.틀 신기 11.발미)을 통해 탱화의 기초와 기능을 함께 배우면서 완성도 높은 예배용 탱화의 완성이 목표

- 모집분야 : 한 탱화과, 기초기반(도안과), 교육 민화(단청과)
- 모집인원 : 서울(한 탱화과 20명 / 교육 민화 단청과 20명), 경주(한 탱화과 10명 / 기초기반 도안과 10명), 부산(한 탱화과 10명)
- 교육장소 : 서울 -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전통채색학교, 경주 -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008-16 한국전통채색학교, 부산 - 진구 연지도 부산시민공원 인근 한국전통채색학교
- 수강신청 : 10월 8일까지 (서류접수 10월 10일까지)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개 강 : 2013년 10월 16일 (각 지역 별도 개강)
- 교육일정 : 2013년 10월 16일 - 2014년 3월 16일 (5개월)

성유불화원 금어 조성철 합장
문의 051)332-0045 / 010-9216-0988